

출판가, 언론기자 책이 뜬다

필력과 정보력이 베스트셀러를 만든다

최근 출판가에서 언론기자 책이 뜨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11곳의 도서판매 부수를 근거로 집계한 3월 넷째 주 종합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2위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신웅진·명진출판), 5위가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정철진·한스미디어), 10위가《배려》(한상복·위즈덤하우스)로 나타났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는 2007년 1월에 출간된 후 3월말까지 30만 부 이상 팔렸다. 이 책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됐지만, 40대 남성들의 구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판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평균 구매율이 각각 10%와 30%이며, 40대가 32%를 차지한다. 명진출판은 이에 앞서 장남으로 태어난 저자(MBC 윤영무 기자)가 '장남' 이기에 겪어야 했던 애환과 삶의 아픔을 진솔하게 고백한 《대한민국 장남으로 살아가기》를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명진출판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의 후속작으로 《CEO의 자녀공부법》을 6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매일경제신문 김소연 기자이다. 편집기획실 박선영 과장은 "언론사 기자들은 글 솜씨가 문학처럼 미려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쓴다. 또한 독자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콘셉트를 명확하게 잡는 감각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기자의 무기인 필력과 정보력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얘기다.

2006년 9월에 출간된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는 3월 현재 40만 부가 팔렸다. 당초 3~4만 부 판매부수를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이다. 이 책의 저자인 정철진 씨는 2004년 말 《목돈 만들기 적립식 펀드가 최고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적립식 펀드가 재테크의 관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던 시기가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자료로 쓸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한스미디어 기획팀 모민원 씨는 "정철진 기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 전에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인문적 소양이 바탕이 돼 글맛이 살아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스미디어는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를 출간한 후 새로운 독자층을 발견했다. 구매 성비를 보면, 여성 대 남성이 6 대 4로 여성이 남성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더 높고, 연령 면에서도 30대가 18%를 구매할 정도로 30대도 재테크 서적에 갈증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판사에서는 3월에 연작인 《대한민국 30대 재테크로 말하라》와 《대한민국 20대 내 집 마련에 미쳐라》를 출간했다. 기획팀 모민원 씨는 "입체적으로 편집구성을 할 줄 아는 장점이다 정철진 기자의 글맛에 독자들이 매료된 점이 베스트셀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출판사의 편집기획력, 정보력과 필력을 갖춘 언론기자와의 궁합이 딱 들어맞으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 이외에도 2006년 1월에 출간된 《배려》는 지금까지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저자인 한상복 씨는 10년 이상 신문사 경제기자로 일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도에 《한국의 부자들》(전2권)을 펴내 경제경영서 분야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올해 나온 《뉴스는 반만 믿어라》(노광준·진리탐구)는 언론사 PD가 썼고, 《박미향 기자 행복한 맛집을 인터뷰하다》(박미향·황금부엉이)도 현직 사진기자이다. ■

취재 정윤희 기자

